

안양교회, 미얀마 선교지에 교회 건축 진행

여전도회 바자회 수익금으로

안양교회(강대일 목사)가 여전도회 바자회로 마련한 선교기금으로 선교지 교회 건축 사역을 이어가며 선교하는 교회의 본이 되고 있다.

이번에 건축이 진행 중인 교회는 미얀마 네피도에 위치한 웨슬리교회로, IMTC에서 훈련을 받고 파송된 탄진웅 선교사가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다.

안양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IMTC와 협력하며, 네 팔에 두 명의 선교사를 임명하여 후원하고 있다.

안양교회에서 건축하는 네피도 웨슬리교회 특히 이번 미얀마 교회 건축은 여전도회 바자회를 통해 이루어진 두 번째 (탄트 진우 선교사) 선교지 교회 건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앞서 안양교회 여전도회는 2024년 태국 치앙라이에 라이 부족 교회 건축을 지원한 바 있다.

여전도회원들은 바자회를 준비하며 선교지를 향한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열매가 실제 선교지 교회 건축이라는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헌신은 한국교



회와 성도들에게 선교적 삶의 귀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강서교회, '필리핀 용사교회' 헌당

제14호 해외선교지교회... 담임 동영진 목사

강서교회(순화목사)는 지난 1월 25일 필리핀 클라크 인근 포락 지역에 건축한 용사교회에서 제14호 해외선교지교회 헌당예배를 드렸다. 용사교회는 강서교회가 해외에 건축하는 14번째 교회이다.

이번 헌당예배는 한국에서 방문한 강서교회 성도 8명과 현지 성도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사교회 담임인 동영진 선교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예배는 김호경 장로(강서교회)의 대표기도, 순화목사의 '주는 자가 되라'는 제목의 설교, 동영진 선교사의 건축 경과보고에 이어 동창웅 장로의 봉헌기도, 내빈 축사, 순화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용사교회는 본 교단 군목 출신으로 한정철 사역 후 은퇴한 동영진 목사가 필리핀으로 이주하며 개척한 교회다. 필리핀 정착 초기 별도의 사역 없이 지내던 동 선교사는 인근 마을을 순회하며 전도에 나섰고, 전도의 열매들이 모여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게 시작했다. 그러나 현지의 기후 여건상 잦은 비와 우기에는 예배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강서교회 초대 원로장로 김호경 장로와 동창웅 장로, 고윤식 장로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더해져 건축을 지원하면서 은혜로운 성전을 건축하여 헌당하게 된 것이다.

강서교회는 용사교회에 이어 제15호 해외선교지교회로 사도 도마의 순교지로 알려진 인도 첸나이에 '사도 크리스천교회' 건축을 진행 중이다. 해당 교회는 오는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제16호 선교지교회 건축을 위



한 장소를 기도 가운데 물색하고 있다. 선교지 교회 건축이 필요한 선교사는 강서교회 선교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서교회는 매년 농·이촌 교회 한 곳

을 선정해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역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2026년 리모델링 대상 교회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 및 문의는 강서교회(02-2608-4457)로 하면 된다.

선교지편지

필리핀 알로알로 / 오진한·이복자 선교사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2026년 첫 선교편지를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지난 한 해였고 또 희망찬 한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하시는 동역자님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대학생 청소년 리더들의 성경공부 목삭: 이곳 교회들 안에 청소년 성경공부 분이 강하게 일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랑을 보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 목회자와 대학원생들 대상 복음 컨퍼런스: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강력한 메시지로 이 땅의 목회자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감사합니다.

* 일로일로성경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예배: 교회를 통하여 5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2명의 변호사, 4명의 경찰, 3명의 학교장과 교감, 8명의 학교교사, 1명의 대학강사, 1명이 기슭고사 합격했고, 다수의 컴퓨터 전문가 등등 초창기부터 장학금 주며 제자훈련에 집중한 결과 훌륭한 전문인이 되었으며 모두들 교회에서 각 분야의 리더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며 제자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 사역자로 임명받다: 도둑의 아이였었던 아이가 선교사와 8년을 살면서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다니며 정식으로 사역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사역자가 되어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큰 은혜가 넘쳤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 변호사가 된 아이: 태어난 지 8개월 때 부모님과 헤어져 6학년까지 할머니 집에서 양육받다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선교사와 살았습니다. 한때는 공장장으로 불안증을 겪으며 고통이 있었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고 당당하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 창립 기념 주일에는 간증하기를 "정말로 우리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통해서 교육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 이제는 미래 교회를 생각할 시점이 된 거 같습니다.

저희는 미래 교회를 위하여 대학생 청소년지도자 성경공부 외삼을 계속 진행하며 청소년들에게 성경공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성경공부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두란노교회 · 월드비전과 함께 아프리카 르완다 아이들을 위한 비전주일

"르완다 100명의 아이들의 꿈이 자라도록 두란노 교회가 사랑의 끈을 잇다"

두란노교회(이상분 목사)와 월드비전은 지난 1월 25일 두란노교회 김포윤양예배당과 서울 방화예배당에서 월드비전과 함께 비전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번 비전주일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에서 진행된 '밀알의 기적 캠페인' 협약식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협약식에는 두란노교회와 월드비전(회장 조명환, 국민일보(사장 김경희)가 함께했다. '밀알의 기적 캠페인'은 국민일보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월드비전의 개발도상국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이상분 목사와 구성남 사모는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월드비전 '밀알의 기적' 캠페인 팀과 함께 르완다 음웨지 사일 현장을 방문했다. 귀국 직후 성도들에게 비전주간을 선포하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큰 내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 아프리카 르완다 아동들이 처한 현실을 전하고 후원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했다.

르완다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한 아픈 역사를 지닌 나라다. 수도 키갈리에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며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를 꿈꾸고 있지만, 내전의 상처와 가난의 고통이 지금도 이어지는 가운데 르완다 서부 루티로 지역의 시간은 여



전히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해발 2,500m의 가파른 언덕과 붉은 토지 위에 펼쳐진 계단식 차농장을 방문하고, 산길 위에 자리한 초등학교에서 루티로 지역 아이들을 만났다.

이상분 목사는 부모님들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옷장은 처박은 줄에 걸려있는 것이 전부였고 너무나 열악했지만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면 르완다는 반드시 미래와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르완다 음웨지 지역을 내가 바꿀 수 없지만 한 아이의 학교가는 꿈을 이루어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발 2,500미터 고원 마을에서 만난 파브리스(11)와 다마신(12)의 이야기를 성도들과 나눴다. 예배 중 상영된 르완다 현장 방문 영상에는, 두 아이들의 가정

을 찾아 기도한 뒤 한동안 말이

있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다.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 간 학용품과 가방 등을 전해주며 돌아오는 길에 지나온 청년 시절을 떠올렸고, 이 경험을 간증으로 성도들과 나누어줬다는 마음이 들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청년 시절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담배 한 갑이면 아프리카 아이들의 실명을 막을 수 있다'는 선교사의 호소를 듣고 무릎을 꿇게 됐다. "하나님께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날 이후 하루 세 갑씩 피우던 담배를 끊고 그 돈을 선교비로 보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어 가난한 신학생 시절, 난생처음 비행을 타볼 수 있었던 졸업여행비 8만 원마저 한 선교사의 항공비로 보냈을 때 "그때 느꼈던 선교의 기쁨이 오늘의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고 고백하며 말씀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우리 차를 계속 따라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 미군들의 차량을 따라가며 초콜릿을 받았던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때 내가 받은 사랑과, 포기함으로써 얻었던 기쁨을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전해 주고 싶다"고 전했고 성도들은 화답하여 100여명을 월 4만원씩 후원하기로 작정했다.

(두란노교회 제공)

타가나야 / 임수형 · 홍혜경 선교사

광야를 지나는 믿음

저희에게 지난 12월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어려움은 캄바에서부터 함께 동역해 온 현지 사역자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학교운영을 위해 저희가 세운 단체의 단체장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나갈 사역자들의 리더로 키우기 위해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을 맡고 나서부터 그에게서 조금씩 안좋은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지시에서도 벗어나 본인의 판단대로 하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가 저희에게 잘못을 사과해서 일단 갈등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다스려주셔서 좋은 리더자로 성장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단체를 만들 때 저희를 도와줬던 변호사가 저희가 탄자니아법을 잘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합박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에게 화화로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했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다른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과 관련된 법을 알아본 결과 저희가 그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저희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민국과 노동부에 저희를 신

고했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새해년 새하기를 위해 12월 방학 동안에 교실 한 칸의 마무리 공사와 책상과 의자를 만들고, 학교 전체적인 정비를 다시 해야 하고 학생수가 많아짐에 따라 또 한 대의 스쿨버스가 필요한데, 지금은 구입할 수가 없어서 렌트를 해야 합니다. 작년보다도 교사와 직원들을 더 채용하게 되어서 인건비 또한 늘어난 상황입니다. 학교 규모가 좀 더 커지다 보니 운영비 또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렵지만, 맡겨주신 사명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광야 안에서 저희의 어떠한 부분을 훈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인선교사는 한 달째 감기가 낫지 않고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유적으로,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